

# 오등봉공원 120억원대 법정 분쟁 예고

### 아트파크 “사업 지연으로 안내도 될 금융 비용 부담” 사업비 조정 최종 협상 결렬시 추가 법적 대응 예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비 조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자 측이 절차 지연으로 120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 측은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1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공동사업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특수목적법인인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이하 아트파크)는 2일 제주지법에 강병삼 제주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

아트파크 관계자는 “(공동사업 시행자인) 제주시가 지난 2022년

감사원에 공익 감사가 청구됐다는 이유로 아무 근거 없이 오등봉공원 사업 절차를 3개월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착공 전 해야 할 부지 정리 작업도 3개월 간 지연시켜 금융 비용으로만 이미 120억원을 추가 부담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아트파크는 2차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내비쳤다. 아트파크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사업비 조정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귀책사유를 따지기 위해 2차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만약 (협상 결렬에 따른 사업 무산 과정에서) 제주시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결론나도 현재 부지는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투입된 토지보상비 등) 최소 2400억

원을 주고 토지를 되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트파크와 시는 사업자 수익률과 공원 시설 조성 규모를 놓고 지리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2020년 시와 아트파크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협약을 최초 체결할 당시 총 사업비는 8100억원 규모였다. 민간사업자는 전체 부지 76만2000여㎡ 중 66만7000㎡에 음악당 등 공원 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15층 짜리 1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협약 이후 4년이 흐르는 사이 급리와 물가가 상승하면서 협약대로 진행할 경우 총 사업비는 1조4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트파크는 최초 협약대로 사업을 이행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3.3㎡ 당 21억원까지 치솟아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다며, 3.3㎡당 2590만원대로 맞추기 위해 수익률을 48%

가량 낮추고, 음악당 등 공원시설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해당 시설 건립 비용을 1900억원에서 980억원대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반면 시는 음악당 등 공원시설을 최초 협약대로 조성할 것과 사업자 수익률은 60% 가량 더 낮추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아트파크 측은 밝혔다.

아트파크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5월로 예정된 아파트 분양을 무기한 보류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사업자 측 주장에 대해 “협상 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다만 민간특례사업의 핵심인 공원시설에 대해선 최대한 그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측에 수익률을 60% 가량 낮추라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한 적은 없다”며 “사업자 측의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 도교육청, 2024년 폐교 재산활용 시행계획 수립 지역주민 위한 체육·공원 적극 검토

### “폐교 된 35개교 중 11곳 현재 활용방안 못 찾아”

제주도교육청이 도내에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폐교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 용역까지 동원한 가운데, 용역에서 제시된 청사진과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폐교 등 일 반재산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데 이어 최근 ‘2024년 폐교 재산 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폐교재산 현황을 보면, 도교육청 산하 폐교 35곳 가운데 매각 또는 자체 활용 중인 학교 8곳을 제외한 도내 폐교는 총 27곳이다. 이 가운데 15곳은 유·무상, 행정·마을·민간을 아울러 활용되고 있다. 반면 나머지 12곳은 대부분 기간 종료 등으로 ‘미활용 폐교’로 분류됐다. 보존 관리 중인 주차장 횡간분교장 1곳을 제외하면 11곳이 사실상 뚜렷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학교 가운데 신산중, 신산초, 난산중, 영락초, 신도초, 보흥중 등 4곳은 건물 없이 부지

만 덩그러니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폐교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 D·E 등급을 판정을 받아 철거된 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에 의해 수년째 부지만 관리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미활용 폐교에 대한 활용법을 찾기 위해 지난해 연구 용역까지 동원한 가운데, 용역에서 제시된 청사진과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폐교 등 일반재산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데 이어 최근 ‘2024년 폐교 재산 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폐교재산 현황을 보면, 도교육청 산하 폐교 35곳 가운데 매각 또는 자체 활용 중인 학교 8곳을 제외한 도내 폐교는 총 27곳이다. 이 가운데 15곳은 유·무상, 행정·마을·민간을 아울러 활용되고 있다. 반면 나머지 12곳은 대부분 기간 종료 등으로 ‘미활용 폐교’로 분류됐다. 보존 관리 중인 주차장 횡간분교장 1곳을 제외하면 11곳이 사실상 뚜렷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학교 가운데 신산중, 신산초, 난산중, 영락초, 신도초, 보흥중 등 4곳은 건물 없이 부지만 덩그러니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폐교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 D·E 등급을 판정을 받아 철거된 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에 의해 수년째 부지만 관리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중산간 일대 유기견 집중 포획한다

### 서귀포시 4월 한 달간 표선·성산·남원 일원

서귀포시는 올 상반기에 중산간지역 유실·유기견 집중 포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유기견의 주요 번식기인 봄철에 중산간 주요 출몰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포획을 실시해 지역주민이나 오를 등반객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 포획 대상지는 표선면(2-5일), 성산읍(9-12일), 남원읍(16-19일)으로 지역별로 4일간 이루어진다.

포획팀은 민간 유기동물 전문 구조·포획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제주도 동물방역과 인원으로 구성

된다. 포획된 유기견은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돼 공고하고 보호·관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서귀포시 관내 유기견(들개)에 의한 닭·소 등 가축 피해는 19건 1300만원, 무·배추 등 농작물 피해는 3건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 물림 사고의 경우 제주도 전체적으로 18건이 발생했다.

작년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유기견을 포획한 사례는 남원읍 61마리, 성산읍 30마리, 표선면 18마리, 안덕면 13마리, 대정읍 11마리였고 동지역에서도 29마리가 잡히는 등 총 162마리로 집계됐다. 전선희기자

## 지난해 자연재난 재산피해 62억원

### 도, 재난관리실태 공시 “복구에 매년 수십억 투입”

지난해 제주에서 태풍·한파 등 각종 재난으로 62억7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제주도의 2023 재난관리실태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각종 재난 7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6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복구비는 19억7600만원이 들었다.

구체적인 재난 및 피해 현황을 보면 한파(1월 23일~31일)로 인한 시설 피해 2400만원, 호우(5월 4일~6일) 피해 800만원, 호우·강풍·풍랑(6월 27일~7월 27일) 피해 3억 1300만원, 제6호 태풍 카눈(8월 9일~11일)으로 인한 시설피해 4억 2600만원, 대설·한파(12월 20일~25일) 피해 8억2500만원 등이다. 각 피해별로 많게는 12억12900만원에

서 적게는 1400만원의 복구비용이 들었다.

제주에는 매년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 피해 복구에 해마다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도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원은 정원 대비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도내 방재안전직 정원은 5급 5명, 6급 8명, 7급 12명 등 총 25명이지만, 현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이다. 방재안전직 현원은 2020년 10명에 이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1명에 그치고 있다.

방재안전 직렬은 세월호 참사 이후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2013년 신설돼 이듬해부터 채용됐다. 이들은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 통합지원본부 운영, 각종 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대통령 의대 증원 담화에 쏠린 눈 1일 제주대학교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 제주도정소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증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음식점은 업소에 부착된 지정서 내 QR코드,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710-2141-2142

**\* 혼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일상돌봄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①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②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13~39세)

(지원내용) 재가돌봄가사,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시행지역) 제주시(서귀포시는 '24. 7월 시행예정) (신청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도민이 만들고, 도민이 만족하는 주민참여예산!”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내 손으로 만들고, 모두가 만족하는 주민참여예산 도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기간 : 2024. 4. 1.(월) ~ 4. 30.(화)

○ 공모대상 - 지역주민 다수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다문화·여성·청소년·장애인·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혜택이 있는 사업

- 일자리, 주민소득 창출 등 성장 동력사업,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 당해년도 편성된 예산이 이월·불용되지 않을 수 있는 사업 등

○ 공모방법 -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 신청 (도 → 소문/참여/인원 → 도민참여/제안 → 주민참여예산 → 사업공모 → 사업제안)

\* http://www.jeuju.go.kr/jejujumin/index.htm -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

○ 접수기관 : 도 홈페이지(온라인), 도-행정사·읍면동 주민센터(서면 제출)

○ 문의처 : 도청 예산담당관(예산지원팀, 064-710-2325) 행정시 기획예산과 예산팀 728-2233(제주시), 760-2204(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 (유의) 본 공모는 '사업 제안'이며,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도 제안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

### ■ 제주소방, 불철질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발령일자: 2024. 3. 29.(금)

□ 발령사유

○ 불철 고사리 채취 등 야외활동 증가로 길 잃음사고 지속 발생

○ 길 잃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 고취 및 사전대비 필요

○ 관계부서와 유관기관을 길 잃음 안전사고 예방활동 전개

□ 최근 5년간 사고발생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사고건수	459	109	104	98	86	62
고사리 채취	190	39	40	40	33	38
등산·오름	150	28	45	33	31	13
올레길 돌레길	119	42	19	25	22	11
구조인원	504	154	104	98	86	62
사망	1	0	0	0	1	0
부상	19	0	1	7	5	6
상태양호	473	154	103	85	77	54
기타	11	0	0	6	3	2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고윤미(710-3533)

**2022년 정부공익무명묘 공급업체 선정**

종사업등록번호 제 18-2002-20-07호

**신비향, 수라향, 설국향 궁천 5년생, 홍미향(화분)**

- 유라조생 1~3년생 • 하례조생 1~4년생
- 궁천 1~4년생 • 레드향 1~5년생
- 사라향 • 탐나는봉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카라향 • 천혜향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 ▶ 전방위 형성과 뿌리상생 방지
- ▶ 피수익시간 단축
-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목을 말합니다. 이식할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잔뿌리 형성에 좋으며 미수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홍진 / 하갈 / 금굴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계장원농장은 종자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종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계 농업회사법인(주) 장원농장**

제1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3083 / 제2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2998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